

초 데 합 니 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책활동이 시작된지 5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우리민족이 일본제국주의에서 해방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90년 11월 발족이후부터 끈질기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죄 및 법적 책임이행을 요구해 왔습니다. 일본정부는 처음에는 그런일 없었다며 부인하다가 결국은 일본군의 직접 개입을 인정했으며, 부분적인 강제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개인 배상은 할수 없다는 기본원칙하에 민간기금을 통한 위로금을 군 '위안부' 생존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국민중 혹자들은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민간기금 위로금은 일본정부가 여전히 피해 당사자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은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본회는 일본정부의 민간기금 [위로금]안에 대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여 피해당사자인 정신대할머니들의 입장도 듣고, 각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토론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대표 이호재, 윤정옥, 김희원

토 론 회

제목 : 일본군 '위안부' 민간위로금이 과연 해결책인가?

때 : 1994년 8월 29일(월), 오후 3시

곳 : 기독교회관 강당

순서 :

발제 / 정대협의 운동과 일본정부의 반응

- 권희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토론1 / 이장희 교수(외국어대 법대학장)

토론2 / 김원웅 의원(민주당)

토론3 / 정숙자 목사(여성교회 담임)

정신대할머니 / 김학순, 강덕경